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47세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19세의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맞아 죽은 사건을 판결해야했던 판사가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지었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야만성. 그렇다 이 시대에도 야만성이 문제다. 인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인간 속에 야만성은 늘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문화나 문명, 종교, 교육, 사회적 환경, 개인적 수행의 깊이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사람에 따라 그것이 마음 속 깊숙이 보이지 않게, 아니면 표면 가까이 그 존재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

인간 마음 속 여러 야만성에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기축시대(Axial Age)’라 불리는 서기 전 몇 백 년 사이였을 것이다.

서로 간 교류가 있었든 없었던 고대문명세계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독특한 사상이 유포된 이 기적 같은 시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모든 성인 학자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불교의 철불통계(佛通戒勸)의 첫 연과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로아스터, 노장파 공맹, 석가모니, 모세, 소크라테스 등이 그렇다.

야만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대단한 눈뜸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야만성의 토양

로 인간은 자기 속 야만성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그동안 성과가 어찌하였든 지금도 그 가능성에 기대 야만성을 다스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신부 구타살해 사건 뿐 아니라 두 어린 소녀의 유괴 살해 암매장, 자신과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던 여성 일가족에 대한 어이없는 살해 암매장 등 요즘 우리 사회에 잇따르고 있는 이 끔찍한 야만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앞에 나온 판결문의 문구처럼 ‘경제대국 문명국’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어려운 그 야만성이 왜 이처럼 쉽게 드러나는가?

어느 시대에서나 인간의 삶에서 안전은 최고의 요구조건이며 그 안전이 최대로 보장된 사회를 태평성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야만성이 쉽게 드러나는 사회에 안전이 보장될 리 없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으며, 낮 선 인물 뿐 아니라 이웃마저도 서로를 의

심 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선 국가 사회의 지향성을 한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모두들 경제 우선의 가치에 들떠있다. 경제우선은 자칫 욕망 종족을 개인 영역으로 묶어 가면서 그 욕망을 한없이 확장 시켜 나가는데 몰두하고, 그런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경쟁에 불을 붙이며 이를 위해 다시 터무니없는 욕망을 부추겨야하는, 그런 욕망에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부추기는 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맛에 이부하는, 그것이 비록 영상품이라 하더라도 폭력과 섹스가 쉽게 누구의 손에 나 잡힐 수 있게 하는 사회, 웰빙(Well-Being)이나 로하스(L.OHAS)라는 그럴듯한 단어조차 상업성 속에서야 꽃피게 할 수 있는 사회. 지금 우리는 못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 때문에 경제에만 솔직한 세상, 이만하면 야만성의 토양은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에 문명이나 문화 교육 종교 그 무엇도 알파한 허울뿐이라면 이 끔찍한 사건들에 새삼 놀랄 수도 없는 일이다.

야만성은 터무니없는 욕망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은 이미 몇 천 년 전 기축시대의 가르침이다. 인간은 그 가르침들을 아직 소화해내고 있지 못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얼마간이라도 수정하자고 권하고 싶다.



‘지계청정’ 승단을 기대하며

“열반, 열반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열반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이 사리불에게 물었다. 사리불은 그에게 “벗어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 한다”고 답한다. 우리는 탐욕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 한다. 이 삼독을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열반적정도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가장 이상적인 지표가 삼학(三學, 戒定慧)이다.

불자에게 있어 계와 정과 혜는 삶의 근본이다. 이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틀은 당연히 계다. 계를 어기는 사람에게서 정도 해도 열리지 않는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는 계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불교계는 어떤가? 사찰마다 수계법회를 열고 계를 지키는 삶을 다짐하지만, 실제로 계에 의지해 사는 불자는 그리 많지 않다. 승가의 반계율적 생활도 사회적 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와 3월 20일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불교계에서 이른바 율사이기도 하지만, 이 법들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된 일이다. 수행의 종교에서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을 삶의 근간으로 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다. 승단을 위한 법이지만 이 법을 계기로 조계종 승단이 지계청정의 모습을 확립한다면 재가불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재가계율의 토대도 튼튼하게 마련될 것이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이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실행에 만전을 기해줄 길 당부한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실’ 하게

신년벽두에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국보 제1호 승례문 화재사건은 목조문화재 보호에 대한 큰 법문이었다. 무엇보다 사찰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강조되는 계기였다. 우리는 수차례 국보 제1호의 회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올해의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이 건무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경보장치 및 수동소화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진화 설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언이 한 치의 허술함도 없이 실현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문화재 관련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 주목 받을 뿐 뒤가 흐지부지되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그간의 관례다.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 마인드다. 사찰의 목조문화재도 마찬가지다. 불자들이 숭선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찰측도 방재 매뉴얼을 작성해 숙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백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은 유형·무형의 유산이면서 거기에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 문화재를 화마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해당관청의 빈틈없는 정책과 관리 주체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향유하는 국민들의 높은 안전 의식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건무 청장의 공언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좋아 보인다고요? 매일 108배 해요”

마음으로 하는 절

정씨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표정이 무척 밝아보였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는 “아, 제가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비결이 있지요”하고 웃으며 대답한다. 정씨는 최근 아침마다 108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전에도 절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시도는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을 못 갔다. 절을 하며 108배까지 세기도 힘들고 몸도 지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곤 했다. 경전 테이프를 틀어두어도 웬지 지루하고 잘 안 되었다. “그런데 도반이 선물을 해 주었어요. 바로 <나를 깨우는 108배(불교TV제작, 김영사)>라는 책과 CD였어요. 별 기대 없이 틀어보았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는 그 테이프에 맞추어 한 번 한 번 절을 하니 전혀 힘든 줄을 모르게 되었다. 일 배마다 각각 좋은 말씀을 낭송해 주어서 힘이 나고 자신의 마음도 많이 돌아보게 된다고 좋아하였다. 많은 도반들과 나누고 싶으면서 특히 마음을 울려주는 구절을 소개해준다.

스스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다면서 일부를 소개해 준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6 마음을 밝히는 108배

참회의 내용들

참마음 망각 참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은혜와 공덕 망각 참회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아상과 잘못된 언행 참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심 참회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자비심 부족 참회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의 아름다움

수행이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시 스스로 대중과 함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자 하셨음을 기억하여야겠다. 하물며 아직 정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고 바꾸고자 실천하는 것이다. 참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하심 하는 마음이며 업이 녹는 정진의 길이다. 매일 아침을 참회로 시작하는 정 씨에게 자상부처님의 미소가 함께 하는 것 같았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환순간 환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역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인회 평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경원력 공개특강

사) 동방문화진흥회에서는 주역의 대가 也山 이달 선사께서 창제하신 경원력(庚元曆)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경원력 공개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3.26 (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강사 : 청고 이응문(동방문화진흥회 회장) 내용 : 경원력 특강 및 질의응답

◆「주역」개사전(총론)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청고 이응문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 만나보자.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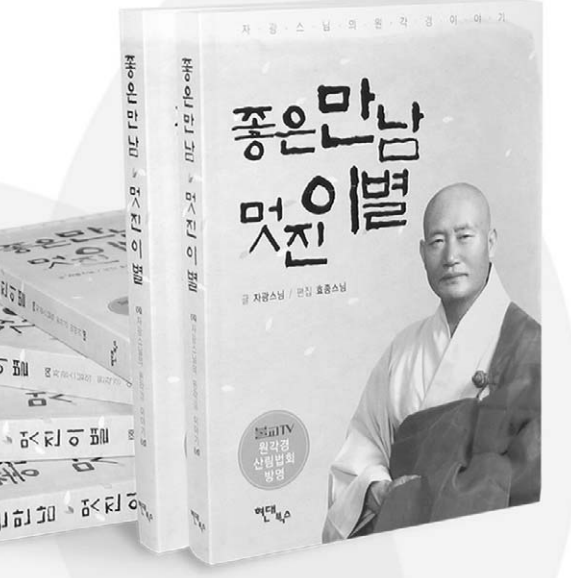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 02)2237-9137, 2237-8970 www.DONGBANG.or.kr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홍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홍사 회주 · 현재 문경대학교 학장 · 자광스님의 중도歌(鐘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불교 뉴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